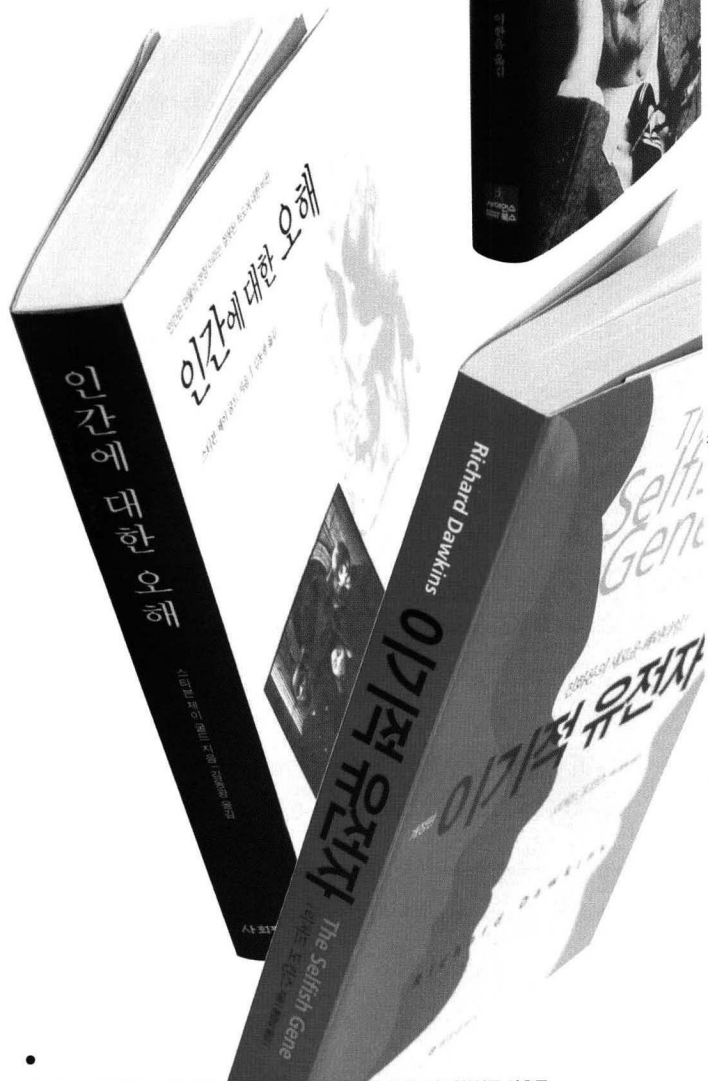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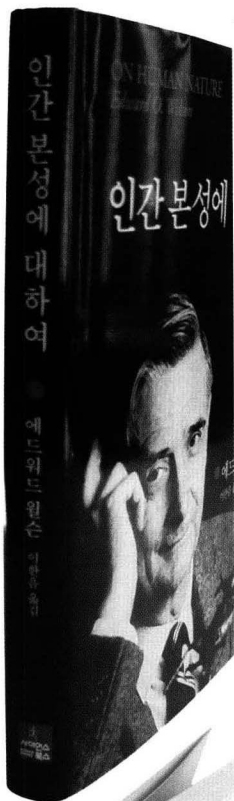


# 욕과 비난의 대상에서 생물 세계와 인간 사회 이론으로



때로는 중구난방이 되고, 때로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지겨운 것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논쟁은 재미있다. 새로운 생각과 박력과 인간의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생물학에는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가장 유명한 것이 다윈이 불러 일으킨 진화론 논쟁일 것이다. 아니 사실 그 이후의 생물학 논쟁들은 그 태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바쁜 일상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진화론이 종교와 관련되면서 널리 보급되었다는 것은 기묘한 일이다. 이 논쟁에서는 다윈의 이름밖에 모르는 사람까지도, 자신의 무지와 오해와 편견을 거리낌 없이, 아니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한 마디 할 수 있다. 이렇게 쉬운 논쟁이 또 있을까? 정치라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했듯이 이 논쟁은 누구나 쉽게 끼어들 수 있지만 참여하고 나면 곧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무지가 무지인 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굳이 인정할 필요도 없이 원론만 되풀이해도 별 상관 없다는 점이 이 논쟁의 장점이자 단점이기 때문이다. 논쟁의 전제와 초점이 다르지만, 이런 문제는 유식한 생물학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이 논쟁의 장점이자 단점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전문적인 논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쉽게 한 마디 끼어들 수 있다. 그건 이렇다고 말이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진화론 논쟁을 새롭게 부활시키는 역할을 했다. 인간을 비롯한 생물이 단지 유전자의 목적에 쓰이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개념은 왠지 불편하면서도 호소력이 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으스스한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유혹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듯하다.

이 개념을 처음 접한 것은 대학생 때였는데, 이미 이른바 생물학적 사고방식을 어느 정도 접한 뒤라, 받아들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 거부감보다는 신기함과 호기심이 먼저 동했다고나 할까. 아무튼 열면 토론을 자극하던 시대 상황에 힘입어 꽤 활발하게 논쟁을 벌였던 기억이 난다. 어쩌면 그 시절에 토론문화는 활기를 띤 반면 토론 거리가 될 과학 출판물은 드물었다는 점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반면에 현대 생물학 논쟁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었고, 이기적 유전자 못지않게 사회적 과급효과가 컸던 사회생물학

이 글을 쓴 이한음은 서울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했으며, 1996년 경향신문 신춘문에 소설 부문에 당선됐다. 현재 과학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과학 소설집 《신이 되고 싶은 컴퓨터》가 있고, 옮긴 책으로는 《복제양 돌리》 《클론 AND 클론》 《일부일체제의 신화》 《앞으로 60년》 《핀치의 부리》 《유전자의 세기는 끝났다》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남자》 《여자, 그 내밀한 지리학》 등이 있다.

을 둘러싼 논쟁은 그 당시에는 거의 알지 못했다. 두 논쟁의 출발점이 된 저서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사회생물학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거의 7,8년은 지난 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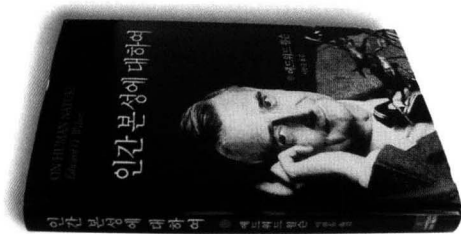
이기적 유전자 이야기로 논쟁의 꽃을 피우던 시절에는 오히려 사회생물학 논쟁의 한 축을 이루고 있던 스티븐 제이 굴드의 단속평형설이 한창 유행을 타고 있었다. 진화론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이 이론은 당시에는 다윈 진화론을 반박하고 창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식으로 엉뚱하게 해석되고 있었다. 그 무렵이 무지가 판을 치고 있던 시대였다는 사실이 이런 식으로도 드러나는 셈이다.

사회생물학 관련 서적은 1990년대 들어와서야 제대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논쟁을 촉발시킨 에드워드 윌슨의 《사회생물학》이 먼저 출간되었는데, 이 책은 사실 두꺼워서 읽기가 아주 버겁다. 따라서 사회생물학을 쉽게 소개할 만한 책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 쉽게 대중을 위해 쓴 책은 《인간 본성에 대하여》였다. 그런데 그 책이 채 나오기도 전에 엉뚱하게도 사회생물학을 비판하는 리처드 르윈틴 등이 쓴 《우리 유전자 안에 없다》가 먼저 번역되어 나오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에는 의욕이 앞섰다가보다는 사회생물학이 위험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황급히 비판 서적을 냈다는 혐의가 짙었다. 르윈틴 등은 윌슨의 책이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 남부 보수주의자의 시도라고 악평을 했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듯했다. 그러니 위

험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 눈에는 품격 있고 점잖게 보이는 논쟁도 사실은 이전투구일 경우가 허다하다. 사회생물학이나 이기적 유전자를 둘러싼 논쟁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두 가지를 비판할 때 주로 들이던 용어가 생물학적 결정론이었다. 즉 사회생물학과 이기적 유전자 둘 다, 모든 것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쉽게도 그 부분은 무혐의로 드러났지만, 한 번 제기된 의심이 평생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식으로, 지금도 그런 주장이 종종 제기되곤 한다.

사실 굴드를 비롯한 비판가들이 그런 오해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다. 그것은 굴드의 글쓰기가 지닌 특징이기도 하다. 한 예로 굴드는 《풀하우스》에서 진화가 진보가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말은 생물학 전공자들뿐 아니라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굴드는 진화가 진보라는 오해가 만연해 있다고 전제해 뒤 이야기를 전개한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오해》에서는 생물학적 결정론이 만연해 있다고 전제해 뒤 이야기를 펼친다. 따라서 독자들은 굴드의 비판 대상이 되곤 하는 도킨스나 윌슨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연중에 갖게 된다. 그의 책에 실린 글들이 대부분 월간지에 연재했던 것이라는 점도 이런 글쓰기가 채택된 이유일 수 있다. 쉽게 설명하려면 비판할 개념을 먼저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 본성에 대하여》 에드워드 윌슨 지음 | 이한음 옮김 | 사이언스북스 | 340쪽 | 값 15,000원



《인간에 대한 오해》 스티븐 제이 굴드 지음 | 김동광 옮김 | 사회평론 | 622쪽 | 값 25,000원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지음 | 홍영남 옮김 | 을유문화사 | 432쪽 | 값 12,000원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이기적 유전자와 사회생물학을 전제로 삼는 《확장된 표현형》과 진화심리학까지 일상적으로 논의되는 시기에 이르렀다. 모욕과 비난의 대상이던 개념들이 어느덧 생물 세계와 인간 사회를 아우르는 이론으로 자리를 굳힌 셈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일반 대중의 생각은 과학의 발전과 거리가 멀 때가 많다. 더 이상 과학계에서 영웅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도 한 이유가 될지 모른다. 과학이 많은 인력과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거대과학으로 변모한 지금은 다윈이나 아인슈타인처럼 이름만으로도 대중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인물이 등장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다윈과 아인슈타인 이후에 이루어진 발전은 모르고 있기가 쉽다. 과학이 너무 어려워진 탓이기도 하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는 고인이 된 굴드 같은 저술가가 더욱 필요할지 모른다. **▶▶**